

2021년 7월 18일(일)

07: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담당 : 권나미 활동가 (070-4760-0712) 김명혜 활동가 (070-4760-120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 카라, 동물학대와 미디어 온라인 강좌 연다

- 7/21, 7/22, 7/28 줌 웨비나를 통해 무료 비대면 강좌 진행
- 동물학대와 강력범죄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유튜브 속 야생동물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는 시간 마련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전진경)는 오는 21일, 22일, 28일 동물학대와 미디어를 주제로 비대면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소셜미디어로 공유되는 동물학대 영상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오픈채팅 고어전문방과 같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오직 인간의 흥미를 위해 사냥당하고 학대받는 미디어 속 야생동물의 삶도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운동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동물권의 미디어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1강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의 이상경 프로파일러가 맡았고 카라 최민경 활동가는 국내 동물학대 사례 흐름을 살핀다. 2강 '미디어 속 야생동물'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김봉균 재활관리사가 진행한다. 마지막 강의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에는 '반짝이는 박수 소리'의 이길보라 감독과 한국여성민우회 은사자 활동가, 동물권행동 카라 권나미 활동가가 참여한다.

비대면 강좌 '동물학대와 미디어'는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동물학대 예방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동물권과 미디어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http://www.ekara.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끝)

### 카라 동물권 더배움 온라인 강좌

#### 《동물학대와 미디어》 안내

- 일시 : 7/21(수), 7/22(목), 7/28(수) 저녁 7시~9시(3강)
- 대상 : 동물권과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
- 후원 : 서울특별시
- 프로그램

1강(7/21 수)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 이상경, 최민경

2강(7/22 목)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 / 김봉균

3강(7/28 수)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 / 권나미, 은사자, 이길보라

- 신청방법 : 카라 홈페이지(<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4633>)
- 문의: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02-3482-0999 / [edu@ekara.org](mailto:edu@ekara.org)

## 참고자료

1.	웹자보	동물학대와 미디어 (정사각형 ver, 8장)
2.	웹자보	동물학대와 미디어 (홈페이지 ver, 2장)

사진1. 동물학대와 미디어 (정사각형 ver, 8장)

( 카라 동물권 디배움 온라인 주제 강좌 )

# 동물학대와 미디어

**KARA**

◆ ◆ ◆

SNS에서 공유되는 동물학대 영상과 오픈채팅 고아전문방 사건은 영백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들은 제대로 처벌받을가요?  
2011년 정글 생존 예능이 등장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유튜브에는 야생동물들 잡아먹거나 죽이는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카라 동물권 디배움의 이번 주제는 동물 학대와 미디어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동물학대 범죄를 국내외 사례와 프로파일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오직 인간의 흥미를 위해 학대받는 야생동물의 실상을 살펴봅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모든 생명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한 각 분야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 ◆ ◆

날짜	7/21(수), 7/22(목), 7/28(수)
시간	저녁 7시 - 9시
대상	동물권과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
후원	서울특별시

◆ 디배움 주제 강좌 ◆

날짜	강좌 제목	강사	키워드
7/21(수)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이상경 최민경	동물학대, 프로파일링, 사이크패스, 폭력
7/22(목)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	김봉곤	야생동물, 유튜브, 미디어, 생태
7/28(수)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	권나미 윤사카 이길보라	미디어로동, 동물, 젠더, 장애

**신청** 홈페이지 게시물 하단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접수해주세요.  
- 본 강좌는 모두 온라인 강연(ZOOM)으로만 진행됩니다.  
- 개별 강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3일 내로 신청 완료 문자를 전송해드립니다.  
- 강연 당일, ZOOM 참여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립니다.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 교육아카이브팀 02-3482-0999, 070-4760-0712(평일 10-5시) [edu@ekara.org](mailto:edu@ekara.org)(상시)

---

◆ 강좌 안내 ◆

1강  
7/21(수) 19시

**“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

**동물학대와 반사회적 성향의 관련성**

프로파일링이란 심인, 강도, 성별 및 동 강력 사건의 수사를 지원하며, 대안방지를 다룬다. 그런데 왜 프로파일링이란 내가 동물학대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윤리적이거나 동물권을 위한다는 당위적 차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강연에서 동물학대와 반사회성의 관련성, 동물학대와 그 외 범죄의 연관성 등을 살펴보고, 처벌 필요성을 논한다.

**이상경 프로파일러(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이화여대 심리학과, 동국대 법학 석사, 호주국립대 공공정책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2008년 경찰청 범죄분석소(현 범죄분석과) 3기로 특채되어 원안사법경찰관, 동적정형사범 수사 팀장,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근무 중이며, 테러를 포함하여 문자메시지 범죄 등 불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범죄와 형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프로파일링』이 있다.

**카라에 접수된 동물 학대 사례**

국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년 사이 13배 이상 늘었지만, 동물학대 범죄는 특징에 따른 공식 통계나 분석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카라의 제보 사례 바탕으로 오픈채팅 고아전문방 사건, 대학 캠퍼스 길고양이 살해 사건 등 국내 동물학대 범죄의 흐름을 알아본다.

**최민경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하늘로 먼저 간 동물들, 코뿔마와 송이, 자두의 영령한 집사이다.



2강  
7/22(목) 19시

**“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 ”**

TV, 유튜브, SNS 등 미디어 매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야생동물들을 다루는 우리의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단순의 흥미를 위해 그들을 지나치게 인위적 환경에서 버려지며 쉽게 소멸하고 있지는 않는지 알아본다.

**김봉곤 재활관리사(송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 생태학 석사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송남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10년간 재활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다. 야생동물의 실상을 지키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언제까지나 야생동물이 곁에서 그들의 친구로 남아 살아갈 수 있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위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3강  
7/28(수) 19시

**“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 ”**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가이드라인도 없는 촬영 현장에서 동물들은 과연 안전한가?  
국내 촬영현장의 동물복지 실태를 살펴보고, 미디어에서의 동물들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고민과 질문을 나눈다.

**권나미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카라동물영양제, 동물전문 클린도서관을 담당한다. 영희의 내용을 넘어서 촬영 과정에서의 동물의 권리를 고민하여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했다.



3강  
7/28(수) 19시


**“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 ”**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가이드라인도 없는 촬영 현장에서 동물들은 과연 안전한가?  
국내 촬영현장의 동물복지 실태를 살펴보고, 미디어에서의 동물들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고민과 질문을 나눈다.

**권나미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카라동물영양제, 동물전문 클린도서관을 담당한다. 영희의 내용을 넘어서 촬영 과정에서의 동물의 권리를 고민하여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했다.



카라 동물권 터매움  
온라인 주제 강좌

# 동물학대 와 미디어

SNS에서 공유되는 동물학대 영상과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들은 제대로 처벌받을까요?

2011년 정글 생존 예능이 등장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유튜브에는 야생동물을 잡아먹거나 죽이는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카라 동물권 터매움의 이번 주제는 동물 학대와 미디어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동물학대 범죄를 국내외 사례와 프로파일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오직 인간의 흥미를 위해 학대받는 야생동물의 삶을 살펴봅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모든 생명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한  
각 분야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짜	7/21(수), 7/22(목), 7/28(수)
시간	저녁 7시 - 9시
대상	동물권과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
후원	서울특별시

◆ 터매움 주제 강좌 ◆

날짜	강좌 제목	강사	키워드
7/21(수)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이상경 최민경	동물학대, 프로파일링, 사이코패스 폭력
7/22(목)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	김봉균	야생동물, 유튜브, 미디어, 생애
7/28(수)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	권나미 은사자 이길보라	미디어운동, 동물, 젠더, 장애

**신청** 웹자보 아래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 본 강좌는 모두 온라인 강연(ZOOM)으로만 진행됩니다.
- 개별 강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3일 내로 신청 완료 문자를 전송해드립니다.
- 강연 당일, ZOOM 참여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립니다.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 교육아카이브팀 02-3482-0999, 070-4760-0712(평일 10-5시) | edu@ekara.org(상시)

◆ 강좌 안내 ◆

1강  
7/21(수) 19시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동물학대와 반사회적 성향의 관련성

프로파일링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의 수사를 지원하여, 대안방향을 다룬다. 그런데 왜 프로파일링이 18기 동물학대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 내용은 중요한 사항. 그것이 용의자에게 동종종을 한다는 용의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더욱 중요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때문이다. 이번 강연에서 동물학대의 유사성, 심의 관련성, 동물학대와 그 외 범죄의 연관성 동물학대, 사법, 효용성을 논한다.

이상경 프로파일링(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이화여대 심리학사, 동국대 대학원 석사, 호주국립대 공중정책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2008년 경찰청 범죄분석팀(프로파일링) 3기로 특채되어 반사회적 경향성, 동적경향성을 거쳐 현재 서울경찰청법률과학수사팀에서 근무 중이다. 대상을 공중정책 분야와 범죄 예방, 대상을 목표로 한 범죄의 협상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에 프로파일링이 있다』



카라에 접수된 동물 학대 사례

국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7건으로 10년 사이 13배 이상 늘었지만, 동물학대 범죄는 특성에 따른 공식 통계나 분석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카라의 정보 사색 바탕으로 모순적인 고문인양 사건, 내국 캣루스 실험고양이 살해 사건 등 국내 동물학대 범죄의 추이를 살펴본다.

최민경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허블로 먼저 간 동물들, 코펜하겐 송이, 자주의 영반환 캠페인이다.



2강  
7/22(목) 19시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

TV, 유튜브, SNS 등 미디어의 매체에 노출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의 삶을 들여다보고, 야생동물을 다루는 우리의 방식이 어떤 위험인지, 단순한 흥미를 위해 그들을 지나치게 인위적 환경에서 바라보게 하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어떤지 알아본다.

김봉균 재활관리사(송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 생애주기 관리, 재활치료 등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10년간 재활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다. 야생동물의 삶과 지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인위적이지 야생동물의 삶에서 그들의 친구로 남기어 살아가고 싶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이해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3강  
7/28(수) 19시

“어떠한 생명도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미디어 활동”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없는 환경 상황에서 동물들은 과연 안전한가? 국내 동물권단체가 동물에게 해를 입지 않고, 미디어에서 야생동물을 위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고민과 질문을 논한다.

권나미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카라 동물권행동, 동물권행동 캠페인 담당자이다. 영역의 내용을 넘어서 활동 과정에서 동물의 권리를 고민하여 동물 출현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했다.



미디어X세미나! 오늘의 질문, 내일의 변화

‘남성 카메라가 스스로 감자를 꺼내다’? 페미니스트가 콘텐츠를 살피면 죽 만든 콘텐츠를 읽어내는 질문을 소개한다.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미디어 콘텐츠를 더 다정하고 영동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상상해본다.

은사자 활동가(한국야생동물생태미디어팀)

콘텐츠, 덕후로서 작업할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미디어 속 장애인의 재현

장애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농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는 장애를 어떻게 재현하고 구축해왔는지 살펴본다.

이길보라 영화감독, 작가

농민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이기론의 신학적 자질이라고 믿고 있고 그 영향을 만든다. 대표작으로 책 『해부지』로 알려져 있다. 『장신』, 『장신』을 이어 말한다. 동물 피싱, 영화 『반려견』은 매우 노획 『기억의 전쟁』 동물 연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